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 리 라

2016년 8월

석사학위논문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 리 라

2016년 8월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서 리 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서리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6월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  
on Academic Self-Efficacy  
-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Jeju Island

Seo, Li-l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Dae-Sik Hur, Prof.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배경	5
1. 방과후학교 개념	5
가. 방과후학교의 정의 및 목표	5
2. 특기·적성의 이해	6
가. 특기·적성의 개념	6
3. 1인 1악기 활동의 정의 및 목적	7
4. 학업적 자기효능감	7
가. 자기효능감	7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의미	8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	9
5. 선행연구	10
가. 악기교육연구	10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	10
III. 연구방법	12
1. 연구대상	12
2. 연구설계	16
3. 연구절차	17
4. 연구도구	18
가. 설문지	18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20

5. 신뢰도와 타당도 .....	21
가. 신뢰도 .....	21
나. 타당도 .....	22
6.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	23
IV. 연구결과 및 분석 .....	24
1. 기술통계 .....	24
2. 1인 1악기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25
3.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	27
가.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	27
나.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	28
다.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	30
4. 상관관계분석 .....	32
가. 성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	32
나. 학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	32
다.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	33
라.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	33
V. 결론 및 제언 .....	34
부록 .....	37
참고문헌 .....	42
국문초록 .....	46
ABSTRACT .....	48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일반적 사항 .....	13
<표 2> 학년 구분에 따른 응답자 수 .....	13
<표 3> 1인 1악기 활동을 하는 학생의 참여 기간 .....	14
<표 4> 학교에서 시행되는 악기분류 및 악기 종류 .....	15
<표 5> 연구 절차 .....	17
<표 6>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	18
<표 7>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 구성 .....	20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	21
<표 9> 설문지 타당도 .....	22
<표 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별 기술통계 .....	24
<표 11>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	25
<표 12>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	27
<표 13>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	29
<표 14>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	30
<표 15>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3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살아가는 원동력을 키워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삶 속에서 음악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전달하는 매체이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음악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람과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음악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알아보고 그것을 공유하며 또 다른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을 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시작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1인 1악기 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격려하였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는 1995년에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시작되었다. 교과수업외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이루어졌고, 악기활동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에게 음악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1999년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향상시켰다.

그 후, 2013년에 1인 1악기 활동이란 명칭이 새로 생기면서 학생들의 음악교육의 기회는 확장되었다. 1인 1악기 활동은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자유학기제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거나 학교 자체 내에서 1인 1악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접하게 되고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더불어 교육적인 영향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부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1 학생 1 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악기 지원 및 학교 예술 강사 파견을 확대한다.

또한 예술드림학교, 예술교육거점 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교육을 활성화 하려한다.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지역 학교예술교육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에서는 2016년 문화예체능 학생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 학생 1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꿈과 끼를 발현하도록 하고, 학교별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기·적성·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 중심으로 각종 발표대회를 지원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문화예체능 학생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된다. 또한 주제별 학생 자율 동아리를 지원하여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정책을 통하여 창의적 표현능력과 바른 인성 함양을 기대하며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향아래 음악교육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 기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악기활동을 통해 음악적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학부모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악기교육을 시작한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혹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입시위주의 주요교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악기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악기활동을 하지 않게 되며 음악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입시교육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비교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음악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악기교육을 권장하고, 다양한 연구에서도 악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악기활동이나 중·고등학생의 오케스트라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악기활동과 교육적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악기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여, 악기활동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려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인 1악기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악기 활동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1악기 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하여 악기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부 학생이 아닌 전 교생이 필수적으로 1인 1악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악기활동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의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 가. 1인 1악기 활동을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가 있는가?
- 나.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가 있는가?
- 다. 1인 1악기 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내에 위치하는 서귀포시 시내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 4곳과 제주 시내 E중학교 1곳 총 5개교의 중·고등학생 중 9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설문에 참여한 총 863부를 분석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개의 중학교 전 학년과 2개의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86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모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방과후학교의 이해

#### 가. 방과후학교의 정의 및 목표

방과후학교란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교과수업, 특기·적성, 돌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활동,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등을 종합하여 통합한 것을 말한다.<sup>1)</sup>

방과후학교는 처음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고, 제 1차 교육개혁 방안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학교를 정의, 도입하여 방과후학교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996년 2월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교육 사업을 통하여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행하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방과후학교의 양상은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강조된 교과활동 위주로 전개양상을 나타내어 출발 당시의 취지인 개인의 인성 및 창의성 발휘를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개과정을 보여 주었다.

1999년 2월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1996년부터 추진해 온 방과 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교육 활동으

1) 교육인적자원부(2007), "방과후학교 비전과 목표", 「2007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p.1.

로 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의 기질 및 적성 계발과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특기·적성교육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sup>2)</sup>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과 다양한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또한,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이다.

방과후학교의 개념과 목표를 고려하여 방과 후 학교를 정의해보면, 첫째,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 둘째,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내·외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개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셋째, 다양성 중심의 방과 후 교실,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 역할을 한다.<sup>3)</sup>

## 2. 특기·적성의 이해

### 가. 특기·적성의 개념

특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체능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적성이란 하는 일에 대한 알맞은 성질 혹은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성격이나 기질을 나타내 가능성을 말해주는 능력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능력을 의미한다.

특기·적성 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외의 행해지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방과 후와 방학 중의 시간을 이용한 학생의 특기와 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생활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다.(김수영, 2009)<sup>4)</sup>

2) 김홍원(2010), “방과후학교의 도입배경”,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p.9.

3) 한국교육개발원(2009), “방과후학교의 개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 방과후학교 워크북」, pp.9~10.

4) 김수영(2009), 「관악부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 및 효율적인운영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p.5.

### 3. 1인 1악기 활동의 정의 및 목적

1인 1악기 활동이란 일반적인 악기활동 교육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학생 한 명당 하나의 악기를 선택하여 배우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1인 1악기활동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발전시키고 기질 및 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서를 조직·운영해야한다. 둘째, 사교육의 과외 활동을 교내로 흡수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 셋째, 인적 자원 및 교내·외 시설 활용을 극대화한다. 넷째,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창의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의 지향을 목적으로 한다.<sup>5)</sup>

### 4. 학업적 자기효능감

#### 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과제를 끝마친 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가리킨다. 자기 효능감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유능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자신의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5) 배우미(2015), 「1인 1악기 특기적성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의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Bandura<sup>6)</sup>, 1977;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과제를 선택할 때 도전적이며(Bandura & Schunk<sup>7)</sup>, 1981),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Schunk, 1983) 또한,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지수는 낮으며,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고(Pintrich<sup>8)</sup> & De Groot<sup>9)</sup>, 1990), 뛰어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Zimmerman<sup>10)</sup>, Bandura & Maetinez-Pons<sup>11)</sup>, 1992; Zimmerman & Maetinez-Pons, 1990)(김아영 외, 2001).<sup>12)</sup>

이처럼 학교생활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말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

6) Albert Bandura, 사회학습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https://en.wikipedia.org/wiki/Albert\\_Bandura](https://en.wikipedia.org/wiki/Albert_Bandura), 검색일: 2016.5.10.

7) Dale H. Schunk, 교육심리학자, [https://en.wikipedia.org/wiki/Dale\\_Schunk](https://en.wikipedia.org/wiki/Dale_Schunk), 검색일: 2016.5.10.

8) Paul R. Pintrich, 교육심리학자, [https://en.wikipedia.org/wiki/Paul\\_Pintrich](https://en.wikipedia.org/wiki/Paul_Pintrich), 검색일: 2016.5.10.

9) Elisabeth V. De Groot, 교육심리학자,

[https://www.google.co.kr/?gws\\_rd=ssl#q=Elisabeth+V.+De+Groot](https://www.google.co.kr/?gws_rd=ssl#q=Elisabeth+V.+De+Groot), 검색일: 2016.5.10.

10) Barry J. Zimmerman, 교육심리학교수,

[https://en.wikipedia.org/wiki/Barry\\_Zimmerman](https://en.wikipedia.org/wiki/Barry_Zimmerman), 검색일: 2016.5.10.

11) Manuel Martinez-Pons, 교육심리학교수,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anuel\\_Martinez-Pons](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anuel_Martinez-Pons), 검색일: 2016.5.10.

12) 김아영 외(2001), “이론적 배경”,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p.97.



####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

(1) 과제난이도 선호: 과제난이도 선호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제를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김아영, 2001)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악기활동을 통해 학업성취에 있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도전적으로 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여 성취할 것이라 예상한다.

(2)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판단 및 자기관찰 그리고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 대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Bandura, 1986)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악기활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기판단, 자기관찰,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의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3) 자신감: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확신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과 가치에 대해 가지는 확신의 축소된 의미를 말한다.(Sherer<sup>13)</sup> et al, 1982) 즉, 학업적 상황에서 전반적인 자신의 학습 수행 능력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신념 또는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아영 외, 2001)<sup>14)</sup>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악기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예상한다.

---

13) Mark Sherer, 교육심리학자, 검색일: 2016.5.10.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07.1337&rep=rep1&type=pdf>.

14) 상계서, pp.100~101.

## 5. 선행연구

### 가. 악기교육연구

나현이(2014)<sup>15)</sup>는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문선미(2007)<sup>16)</sup>는 음악 사교육 경험이 음악교과 성적과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음악사교육경험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음악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악영역에서 가장 높은 음악성취를 보였다. 또한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연구

강효숙(2013)은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sup>17)</sup>에 관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유의성을 보였다. 학생들의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향상에 영향을 주는 점을 밝혔다.

---

15) 나현이(2014), 「교육부 지원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교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48~49.

16) 문선미(2007), 「음악 사교육이 음악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41~42.

17) 강효숙(2013),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48~49.

마성옥(2011)<sup>18)</sup>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적정상관관계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과제난이도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의 과제수행을 직면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하여 학습을 참여함으로써 학업성취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18) 마성옥(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pp.37~40.

###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악기활동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연구는 제주도내에 위치한 서귀포시 시내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 4곳과 제주 시내 E중학교 1곳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를 활용하여 신뢰도 산출과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 절차와 확실한 연구 결과를 위한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1인 1악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귀포시 시내의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와 제주시 시내의 E중학교 총 5개교를 선정하였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하였으며, 서귀포 B중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909명으로,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무작위로 답변한 46명의 설문을 제외한 863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에는 악기 활동을 계속적으로 선택하여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1인 1악기 활동을 통해 처음 악기활동을 접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악기가 아닌 다른 활동을 선택하여 악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빈도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1>, <표2>로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일반적 사항

항목	하위항목	응답자 수	백분율(%)
악기활동 참여 여부	참여	584	67.7
	비참여	279	32.3
성별	남학생	368	42.6
	여학생	495	57.4
합계		863	100

<표1>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863명중 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584명으로 67.7%이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279명으로 32.3%로 분석되었다. 그 중 남학생은 368명으로 42.6%이며, 여학생은 495명으로 57.4%로 나타났다.

<표 2> 학년 구분에 따른 응답자 수

학년	응답자 수	백분율(%)
중학교 1학년	169	19.6
중학교 2학년	208	24.1
중학교 3학년	35	4.1
고등학교 1학년	244	28.3
고등학교 2학년	207	24.0
합계	863	100

또한 학년으로 응답자의 분포도를 확인해보면, <표2>와 같이 중학교1학년은 169명 19.6%, 중학교2학년은 208명으로 24.1%, 중학교3학년은 35명 4.1%, 고등학교1학년은 244명 28.3%, 고등학교2학년은 207명으로 24.0%로 나타났다.

<표 3>에서는 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 기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참여 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총 584명 중 참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은 108명으로 전체의 18.5%에 해당되었으며, 6개월~1년인 학생은 101명으로 17.3%,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375명으로 64.2%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년 이상 참여한 학생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표 3> 1인 1악기 활동을 하는 학생의 참여 기간

항목	세부항목	응답자수	백분율(%)
악기활동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8	18.5
	6개월~1년	101	17.3
	1년 이상	375	64.2
합계		584	100

다음 <표 4>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5개교의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우고 있는 악기를 조사하였다. 각 학교들은 방과 후 학교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1인 1악기 활동을 하였다. 현악기군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다뤘고, 관악기군은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등을 배운다. 건반 및 타악기는 피아노, 팀파니, 실로폰 등을 배우며 이러한 악기들을 이용하여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실내악단의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전자악기군은 드럼, 전자기타 등을 배우고 그룹사운드 활동을 한다.

<표 4> 학교에서 시행되는 악기분류 및 악기 종류

악기 분류	악기 종류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관악기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럼본, 유포늄, 튜바,
건반 및 타악기	피아노, 팀파니, 드럼세트, 마림바, 실로폰, 심벌즈
전자악기	드럼, 전자기타, 베이스, 키보드

##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 검정이란 연구자가 인식한 문제점의 표본 집단이 2개의 표본으로써 서로 독립적일 때 두 집단의 표본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송인섭, 2004)<sup>19)</sup>

본 연구에서는 1인 1악기활동에 참여한 학생 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악기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하는데 t 검정 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1인 1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악기활동의 참여 기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sup>20)</sup>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 1악기 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sup>21)</sup>를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19) 송인섭(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t-test', 숙명여자대학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593&cid=42125&categoryId=42125>, 검색일: 2016.5.9.

20) 세 개 이상의 집단들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여 한개 이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21) 두 변인 간의 상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계수이다.



### 3. 연구 절차

이 연구는 1인 1악기 활동을 운영하는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미리 통화를 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 선생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표 5>와 같으며, 본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5~10분이었으며 설문지에 대한 자세한 구성요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5> 연구 절차

절차	내용	기간
준비	·연구주제 및 연구계획 수립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조사	2016. 1~2
설계	·연구 목적, 문제 선정 ·이론적 배경 조사 ·연구 주제에 알맞은 연구 도구 선정 ·연구 대상 섭외	2016. 3
적용	·설문지 구성 및 검토 ·설문 조사 실시 -일반적 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2016. 3~4
분석	·수집된 자료 결과 확인 ·통계프로그램(SPSS)을 사용한 자료 분석 및 해석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검사	2016. 4
정리	·연구 결과 자료 정리 및 논문 작성	2016. 5~6

#### 4. 연구 도구

##### 가. 설문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구성과 내용은 일반적 특성 문항 4문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 2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표 6>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기간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대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4문항이다. 그리고 총 28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김아영 외, 2001)<sup>22)</sup>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별로 아니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로 점수를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6>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분류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참여여부, 참여기간	4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10
	자기조절효능감	10
	자신감	8
총 문항수		32

22) 김아영 외(2001), 전계서, p.113.

### (1). 일반적 특성 구성

설문지 구성내용 중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4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중 성별과 학년, 참여여부, 참여기간을 묻는 문항은 1인 1악기 활동을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인 1악기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별, 학년, 참여여부의 일반적 특성 문항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1인 1악기 활동 외의 일반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에 대한 문항은 총 3가지 구성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 기간에 대한 문항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3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응답자가 해당하는 곳에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였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설문지 구성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하여 학습자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2001)이 개발하고 연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ASE)를 사용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7>으로 제시하였다.

<표 7>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 구성

구성 요소		문항 번호 (*역채점 문항)	문항 수
학업적 자기효능감		1~28문항	28문항
하위 요인	과제난이도 선호	1, 2, 3, 4, 5, 6, 7, 8, 9, 10 (* 2, 3, 6, 7- 역채점 문항)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문항
	자신감	21*, 22*, 23* 24*, 25*, 26*, 27*, 28* (* 21, 22, 23, 24, 25, 26, 27, 28 -역채점 문항)	8문항

\*역채점 문항: 한쪽으로 치우쳐진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혼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문항수는 과제난이도선호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역채점 문항도 포함되어있는데, 2, 3, 6, 7, 21, 22, 23, 24, 25, 26, 27, 28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5. 신뢰도와 타당도

### 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전체 28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1로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계수란 설문지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통계학적으로는 신뢰도계수가 엄격하게 0.7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sup>23)</sup>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가 .91로 0.7이상의 신뢰도를 보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세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문항은 .87, 자기조절효능감 문항은 .89, 자신감 문항은 .87로 나타났다.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역채점 문항)	신뢰도
과제난이도 선호	1, 2*, 3*, 4, 5, 6*, 7*, 8, 9, 10	.87
자기조절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9
자신감	21*, 22*, 23*, 24*, 25*, 26*, 27*, 28*	.87
전체	28문항	.91

23) 매일경제 용어해설, 'Cronbach Alpha Coeffici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071&cid=50309&categoryId=50309>, 검색일: 2016.4.29.

## 나. 타당도

본 연구의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김아영 외 (2001)<sup>24)</sup>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는 척도로 사용된다. 연구·개발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은 총 61개의 문항 중에서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영역 8문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의 총 28문항을 가지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9>는 본 연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의 고유값<sup>25)</sup>은 8.585가 나왔으며 분산설명<sup>26)</sup>은 30.661%를 보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의 고유값은 3.694, 분산설명 13.194%, 자신감 영역은 고유값 2.572, 분산설명 9.185%의 값을 나타냈다.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영역의 합계 분산설명이 50%가 넘어야 요인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을 더한 분산이 53.04%로 본 연구의 설문지의 타당도가 성립된다.

<표 9> 설문지 타당도

하위 요인	고유값	분산설명(%)
과제난이도 선호	8.585	30.661
자기조절효능감	3.694	13.194
자신감	2.572	9.185
합계		53.04

24) 김아영 외(2001), 전계서, pp.115~116.

25) t값과 같이 분산설명을 구하기 위한 값을 의미한다.

26) 해당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영역이 상위개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를 얼마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이때, 하위요인의 합계가 50%가 넘으면 상위개념(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6.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귀포시 시내 4개교, 제주시 시내 1개교 총 5개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863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 1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 수,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사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영역과 하위요인 영역별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악기활동 참여 여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하였다.

넷째, 악기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 참여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별, 학년, 악기활동 참여 여부, 참여기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이 연구는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악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 결과를 예상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를 통해 본 연구문제를 확인하였다. 1인 1악기 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참여한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중 하위요인인 학년과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 1. 기술통계

기술통계분석은 응답자의 일반적 응답수준을 파악하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표 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별 기술통계 (응답자 수=863)

요인	평균/만점	표준편차
과제난이도 선호	3.34/6	.83
자기조절효능감	3.70/6	.78
자신감	4.02/6	.97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3.66/6	.64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별 기술통계에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은 6점 만점에 3.34,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은 3.70, 자신감 영역은 4.02 그리고 전체 문항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 평균점수가 3.34부터 4.02 사이에 있으므로 각 영역별 응답 수준이 평이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 문제 1에 해당하는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여 t 검정을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863명 중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584명,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279명이었다.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차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항목	참여 여부	응답자 수	평균/만점	표준편차	t	p
과제난이도 선호	참여	584	3.42/6	.82	4.14	.000
	비참여	279	3.17/6	.81		
자기조절효능감	참여	584	3.78/6	.77	4.02	.000
	비참여	279	3.55/6	.78		
자신감	참여	584	4.12/6	.98	4.53	.000
	비참여	279	3.81/6	.90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참여	584	3.75/6	.64	5.80	.000
	비참여	279	3.49/6	.60		

\*p<.05

<표 11>에 의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은 6점 만점에서 악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3.42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3.17점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sup>27)</sup>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5$ ). 다음으로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은 6점 만점에서 악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점수가 3.78,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3.55의 평균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마찬가지로 자신감영역의 만점은 6점이며, 그 중 악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은 4.12이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평균은 3.81로 악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전체의 평균은 악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3.75,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평균이 3.49로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

27) 유의수준을 95% 신뢰할 수 있다고 하여 .05보다 값이 작을 경우 유의확률로써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률적으로 봐서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 3.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일반적 사항(성별, 학년,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t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학년은 중1, 중2, 중3, 고1, 고2로 분류하여 5집단을 비교하였고, 참여 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분류한 후 3집단을 비교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가.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다음의 <표 12>는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항목	성별	응답자 수	평균/만점	표준편차	t	p
과제난이도	남	368	3.56/6	.81	6.93	.000
선호	여	495	3.18/6	.81		
자기조절	남	368	3.78/6	.77	2.51	.012
효능감	여	495	3.65/6	.78		
자신감	남	368	4.05/6	.95	0.74	.462
	여	495	4.00/6	.99		
학업적 자기효능감	남	368	3.78/6	.61	4.61	.000
전체	여	495	3.58/6	.65		

\*p<.05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남자가 3.78, 여자가 3.58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은 6점 만점에 3.56, 여학생은 3.18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에서는 6점 만점에서 남학생은 3.78의 평균점수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3.65로 남학생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감영역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은 6점 만점에 4.05, 여학생의 평균은 4.00으로 근소하게 남학생의 평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및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에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자신감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나.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에 따라 중1, 중2, 중3, 고1, 고2로 분류한 후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학년에 따른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서 중1학생이 3.38, 중2학생은 3.43, 중3은 3.24였으며 고1학생은 3.54, 고2학생은 3.50이었다. 5집단 중 고1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세 영역의 결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과제난이도 선호영역에서의 평균점수는 6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1은 3.57, 중2는 3.57, 중3은 3.49, 고1은 3.65, 고2는 3.60의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그 중 고1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의 중1 평균은 6점 만점에서 3.78, 중2는 3.64, 중3은 3.33,

고1은 3.81, 고2는 3.65로 나타났다. 그 중 고1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신감영역은 6점 만점으로 살펴보면 중1은 2.65로, 중2는 2.99, 중3은 2.82, 고1은 3.07 그리고 고2의 평균은 3.15로 나타났으며, 5집단 중 고2에서 가장 높은 평균이 나왔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 13>으로 제시하였다.

<표 13>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항목	학년	응답자수	평균/만점	표준편차	F	p
과제난이도 선호	중1	169	3.57/6	.509	1.707	.146
	중2	208	3.57/6	.504		
	중3	35	3.49/6	.433		
	고1	244	3.65/6	.431		
	고2	207	3.60/6	.461		
자기조절 효능감	중1	169	3.78/6	.871	4.171	.002
	중2	208	3.64/6	.833		
	중3	35	3.33/6	.970		
	고1	244	3.81/6	.657		
	고2	207	3.65/6	.713		
자신감	중1	169	2.65/6	1.035	7.417	.000
	중2	208	2.99/6	1.037		
	중3	35	2.82/6	.829		
	고1	244	3.07/6	.882		
	고2	207	3.15/6	.906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중1	169	3.38/6	.486	6.816	.000
	중2	208	3.43/6	.464		
	중3	35	3.24/6	.484		
	고1	244	3.54/6	.347		
	고2	207	3.50/6	.386		

\*p<.05

다.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 기간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의 3집단으로 분류를 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14>을 제시하였다.

<표 14>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항목	참여 기간	응답자수	평균/만점	표준편차	F	p
과제난이도 선호	6개월 미만	108	3.68/6	.488	0.604	.547
	6개월~1년	101	3.69/6	.478		
	1년 이상	375	3.64/6	.457		
자기조절 효능감	6개월 미만	108	3.76/6	.792	0.222	.801
	6개월~1년	101	3.82/6	.714		
	1년 이상	375	3.77/6	.779		
자신감	6개월 미만	108	2.95/6	1.008	0.888	.412
	6개월~1년	101	2.95/6	.887		
	1년 이상	375	2.83/6	1.003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6개월 미만	108	3.50/6	.423	1.264	.283
	6개월~1년	101	3.52/6	.374		
	1년 이상	375	3.45/6	.427		

\*p<.05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평균점수는 6점 만점의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3.50, 6개월~1년 미만은 3.52, 1년 이상은 3.45로 나타났다. 그 3집단 중 6개월~1년 미만의 1인 1악기 활동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선호 영역에서는 6개월 미만의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3.68, 6개월~1년 미만은 3.69, 1년 이상의 평균은 3.64로 6개월~1년 미만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은 6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6개월 미만이 3.76, 6개월~1년은 3.82, 1년 이상은 3.77로 6개월~1년 미만의 평균이 조금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감 영역에서는 6점 만점의 평균점수에서 6개월 미만의 평균점수는 2.95이고, 6개월~1년 미만 역시 2.95의 평균을 보였으며 1년 이상은 2.83로 나타났고, 그 중 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이 같은 수치로 자신감 영역에서 근소하게 높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4. 상관관계분석

##### 가. 성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내용과 같다. 성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해보면 유의확률<sup>28)</sup>은 .000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 값<sup>29)</sup>은 -0.154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자가 1, 여자가 2이므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다.

##### 나. 학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유의확률이 .254로 학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상관계수 값은 -0.039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

28) 가설을 세울 때 귀무가설(설정된 가설이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과 대립가설(실제 검증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대체되는 가설)로 나눈다. 이때, 귀무가설은 상관계수는 0이라 정의하고, 대립가설은 상관계수는 0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성립하여, 상관계수가 0이 아님을 밝혀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가설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29) 상관계수( $r$ )는 항상 부등식  $-1 \leq r \leq 1$ 을 만족시키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 > 0$ ,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 < 0$ 이다. 또 무상관일 때는  $r = 0$ 이 된다.



다. 1인 1악기 활동 참여 여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악기 활동 참여 여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다. 또한 Pearson 상관계수 값은 -0.190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으며, 참여 해봤다가 1, 참여 해보지 않았다가 2이므로 참여해본 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악기 활동 참여 기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확률은 .758로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 값은 0.013로 양의 높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앞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 15>를 제시하였다.

<표 15>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항목	상관계수 값	p
성별	-0.154	.000
학년	-0.039	.254
참여 여부	-0.190	.000
참여 기간	0.013	.758

\*p<.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인 1악기 활동이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내 5개교, 총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악기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밝혀내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악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분석 자료의 결과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악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악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영역에서 1인 1악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악기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치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 필요한 과제수행능력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과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신감영역에서는 남학생이 근소하게 여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감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불안함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전체 영역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등학교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즉, 중1, 중2, 중3, 고2학생들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냈다.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이

나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에서는 고1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자신감 영역에서는 고2학생들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1인 1악기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모습에서 6개월~1년 미만의 참여 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은 6개월~1년이 가장 높았고, 자신감 영역은 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의 참여 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세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참여 기간이 길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결과를 밝힘을 통해 악기 참여 기간보다는 악기 활동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1인 1악기 활동이 주는 교육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악기교육이 짧게 배우고 마는 단기적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생활과 자신의 학습능력 및 학습 계획 등을 실천하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악기교육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악기활동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1인 1악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의 예산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 악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악기활동을 권장하는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고 악기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5개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중·고등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악기활동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감의 영역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이나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악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통해 악기활동의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음악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환경이 나타남으로써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전면적인 인식 변화와 악기활동의 교육적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 부 록 목 차

<부록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 39

<부록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 ..... 40-41

#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리라고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악기교육의 중요성을 연구하고자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설문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고, 시험성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문지 참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서리라

※ 본 조사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록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2. 몇 학년 인가요?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3. 현재 1인1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 ① 참여하고 있다 (4번 문항으로)
- ② 참여하고 있지 않다 (뒷장 설문지로)

4. 1인1악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한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1년
- ③ 1년 이상

<부록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

※ 설문지 각문항의 내용마다 학생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칸에 ‘√’표시하세요. 설문지 각문항의 답은 정답이 없으며, 학교의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설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2	가능하다면 어려운 일은 피해 가고 싶다.						
3	나는 깊이 생각해야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8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9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0	나는 쉬운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을 더 좋아한다.						
1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6
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다.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2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22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3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2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2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28	나는 시험 때문 되면 우울해진다.						

(출처: 김아영, 박인영, 2001)

감사합니다.

# 참 고 문 헌

## 1. 석사학위논문

- 강유정 (2014), 「1인 1악기를 위한 오카나라의 체계적인 학습방안 연구-중학교 창의적 체험 학습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효숙 (2012),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현 (2011),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다솜 (2012),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 (2009), 「관악부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외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95-123.
- 김현지 (2010), 「초등학교 시기의 악기 교육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업적, 정서적 영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현이 (2013), 「교육부 지원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교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성욱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주형 (2006), 「중등과정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플루트 지도방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선미 (2007), 「음악사교육이 음악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3·4·5·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우미 (2014), 「1인 1악기 특기적성 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훈 (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미 (2014), 「방과후학교 기악교육이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상윤 (2008), 「중학생의 음악적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은 (2015), 「방과 후 색소폰 수업을 통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음악 변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문영 (2014), 「방과후학교 기악활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화 (2010), 「악기연주중심의 집단음악활동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국내 단행본

- 교육과정정책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정책과, 2016.2.26. 조간보도.
- 교육과학기술부 (2016), “2015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6), “2015년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학교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6), “2015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운영성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16.2.24. 조간보도.
- 교육과학기술부 (2016), “함께하는 행복교육, 전인적 인재 양성을 위한  
2016년 학교예술교육활성화추진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 (2016), “2016 교육부 업무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방과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9), “방과 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워크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2010), “방과 후 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책개발연구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 “2016 제주교육정책”,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 인터넷 자료

- 매일경제, 용어해설, Cronbach Alpha Coefficient, 검색일: 2016.4.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071&cid=50309&categoryId=50309>
- 송인섭 (2004), t-test, 교육평가용어사전, 한국교육평가학회, 검색일: 201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593&cid=42125&categoryId=42125>
-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041> 검색일: 2016.3.10.
- 1인 1악기 사업,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79>  
검색일: 2016.3.10.
- 네이버, <http://www.naver.com>.

상관계수 값, 검색일: 201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9629&cid=40942&categoryId=32204>,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색일: 201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381&cid=42125&categoryId=42125>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검색일: 201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036&cid=42126&categoryId=42126>

구글, <http://www.google.co.kr>.

Elisabeth V. De Groot,

[https://www.google.co.kr/?gws\\_rd=ssl#q=Elisabeth+V.+De+Groot](https://www.google.co.kr/?gws_rd=ssl#q=Elisabeth+V.+De+Groot), 검색일: 2016.5.10.

Manuel Martinez-Pons,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anuel\\_Martinez-Pons](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anuel_Martinez-Pons), 검색일: 2016.5.10.

Mark Sherer, 교육심리학교수,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07.1337&rep=rep1&type=pdf>, 검색일:2016.5.10.

위키 백과, <http://www.ko.wikipedia.org>.

Albert Bandura, [https://en.wikipedia.org/wiki/Albert\\_Bandura](https://en.wikipedia.org/wiki/Albert_Bandura), 검색일: 2016.5.10.

Barry J. Zimmerman, [https://en.wikipedia.org/wiki/Barry\\_Zimmerman](https://en.wikipedia.org/wiki/Barry_Zimmerman),

검색일: 2016.5.10.

Dale H. Schunk, [https://en.wikipedia.org/wiki/Dale\\_Schunk](https://en.wikipedia.org/wiki/Dale_Schunk), 검색일: 2016.5.10.

Paul R. Pintrich, [https://en.wikipedia.org/wiki/Paul\\_Pintrich](https://en.wikipedia.org/wiki/Paul_Pintrich), 검색일: 2016.5.10.

<국문 초록>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 리 라  
지도교수 허 대 식

본 연구는 1인 1악기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이를 통해 악기교육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악기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인 1악기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에 위치한 서귀포시 시내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 그리고 제주시 시내 E중학교의 총 5개교 863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참여여부, 참여기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알아보는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32문항을 사용하여 1인 1악기 활동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영역에서도 높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악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악기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감영역에서는 남·여학생 모두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악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통하여 악기활동의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이나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1인 1악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 on Academic Self-Efficacy  
-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Jeju Island

Seo, Li-la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This study looks into the influence which th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 can have on academic self-efficacy. The focus this study is on acknowledging the effectiveness of musical instrument lessons and encouraging students to consistently take part in musical instrument activities. For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 and those who did not, was analyzed. Furthermore, academic self-efficacy was compared and analyzed also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being the students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musical instrument activ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863 students from 5 schools including A middle school, B middle school, C high school, and D high school located in Seogwipo City and E middle school in Jeju City.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standard being academic self-efficacy. The survey consists of questions asking about gener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grade, whether he or she plays an instrument, and the length of time the individual played the instrument. It also consists a total of 32 questions, including 10 questions on how difficult the assignment is, 10 questions on self-regulated efficacy, and 8



questions on self-confidence. The results were used to compar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instrument activity have better academic self-efficacy than those who do not. They show higher performance in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elf-efficacy, including the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self-regulated efficacy, and self-confidence. According to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participating in musical instrument activities renders a positive influ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of students.

Second, the study shows that among the students taking part in the musical instrument activities, male students have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than female students. Howeve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 anxiety in the self-confidence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inuous research to invigorate musical instrument activity is necessary, and the educational atmosphere of instrument activity is expected to be made by the various approaches of researches. Additionally, in order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elf-confidence of students, it is required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interest of teachers as well as a motivation program, so that all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one-person-one-musical instrument activity.